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자료** 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1월 1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2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1.12.(목)	담당부서	철강화학과
담당과장	김종철 과장(044-203-4280)	담 당 자	한종호 사무관(044-203-4284)

석유화학업계 2017년도 신년인사회 개최

['16년 대비 10.6%↑]

- 석유화학업계, 수출 400억불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-

❶ [사업 재편]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 축소, 고기능 제품 비중 확대
❷ [수출 확대] 고부가 품목 확대, 틈새시장 개척 및 통상대응 강화
❸ [성장 동력] 제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새로운 먹거리 창출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주형환)와 **한국석유화학협회**(회장 허수영) 주관으로 '17. 1. 12. (목), 플라자호텔(서울)에서 **「2017년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」**가 **석유화학업계·유관기관 등 160여명**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

<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요 >

○ **(일시/장소)** 1. 12(목) 18:00~19:40 /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(지하 2층)

○ **(주요 참석자) 주형환 장관**,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(협회장), 박진수 LG화학 부회장,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등 업계 CEO, 유관기관, 언론인 등

□ 주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16년은 **"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희망의 빛을 찾은 해"**였다고 소회를 밝히면서, 특히 수출이 7분기 감소세를 마치고 **4분기**에 증가세(1.9%)로 전환되는데 **석유화학 수출이 큰 기여**(9.2%↑)를 했다는 점에 감사와 격려를 했다.

○ 또한, 2016년에는 정부와 업계, 민간전문가가 함께 **❶「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」**을 **마련**하고, **❷** 석유화학 업계의 **사업재편이 본격화**되었으며, **❸ 설비 대형화, 원료 다변화** 등 **원가경쟁력 확보 노력**이 계속되는 등 **"글로벌 첨단화학 강국"**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.

□ 이와 함께 2017년에는 **국제정치 지형의 변화**와 **보호주의**, 최근의 **유가 상승** 등으로 인해 **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**되는 만큼, 중심을 잡고 **'원칙'에 입각하여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**하였으며, 올해 **핵심정책방향**으로 **❶ 사업재편, ❷ 수출 확대, ❸ 새로운 먹거리 창출**을 제시했다.

❶ [사업 재편]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 축소, 고기능 제품 비중 확대

- 테레프탈산(TPA), 폴리스티렌(PS), 합성고무(BR, SBR), 폴리염화비닐(PVC)과 같은 **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**에 대해서는 **선제적인 구조조정** 노력을 전개하고, 기존 산업을 대체할 **고기능성, 고부가 제품 지속 발굴**

❷ [수출 확대] 고부가 품목 확대, 틈새시장 개척 및 통상대응 강화

- **기능성·고부가 제품 비중**을 높이는 한편, 중남미, 아프리카 등 **신규·틈새시장**으로 수출을 확대하고, **중동 산유국과의 협력** 또는 **해외진출**을 통해 **원료경쟁력 제고**

- 각국의 **무역장벽 강화 움직임**에 대해 **민관 협력**으로 신속 대응

❸ [성장 동력] 제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새로운 먹거리 창출

- **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**(O2O), **빅데이터**를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화학 생산 효율을 추가적으로 제고

- 입체(3D) 프린터와 자율주행차, 드론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도록 **탄소섬유복합재, 엔지니어링 플라스틱** 등 첨단화학분야에 대한 연구개발(**R&D**) **투자** 및 **신산업 진출** 필요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1-12 10:43:59

□ 이에 대해, 업계를 대표해 **허수영 석유화학협회장**은 석유화학 업계가 **수출 4백억 달러를 달성**함으로써 올해 **수출 5천억 달러 회복에 앞장설 것**이라고 화답하면서,

○ 업계 자율적으로 **사업재편을 적극 추진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**을 통해 2017년이 **"첨단화학 강국 도약의 원년"**이 되는 데 총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한종호 사무관(☎ 044-203-42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요

□ 행사 개요

○ 일 시 : **'17. 1. 12(목) 18:00~19:40**

* 신년인사회 행사 (18:00～18:25), 만찬 (18:25～19:05)

○ 장 소 :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(시청앞, B2F)

○ 참석자 : 장관님, 석유화학업계 CEO, 유관기관 등 약 160명

*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(협회장), 박진수 LG화학 부회장,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,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, 김형건 SK종합화학 사장,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등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세부진행순서(안)

구분	시 간	소요시간	진행순서	비 고
신년인사회	18:00 ~ 18:01	'1	주요 내빈 입장	장관님, 주요 내빈
	18:01 ~ 18:05	'4	기념 사진 촬영	장관님, 주요 내빈
	18:05 ~ 18:10	'5	주요 내빈 소개	사회 (협회 본부장)
	18:10 ~ 18:15	'5	신 년 사	허수영 석화협회장
	18:15 ~ 18:20	'5	**축 사**	**장관님**
	18:20 ~ 18:25	'5	건배 제의	석화업계 CEO
만찬	18:25 ~ 19:05	'40	**만 찬**	
	19:05 ~ 19:40	'35	협회 회원업체 참석임원 소개	사회 (협회 본부장)
	19:40 ~	-	폐 회	사회 (협회 본부장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1-12 10:43:59

첨부 2 |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축사

『2017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』

祝 辭

2017. 1. 12(목)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

【 인사말씀 】

석유화학업계 가족 여러분,
정유년(丁酉年) **새해**가 밝았습니다.

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
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,
2017년은 우리 석유화학 업계가
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.

【 2016년 석유화학산업의 성과 】

저는 산업부 신년사를 통해
2016년을 "**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희망의 빛을 찾은 해**"로
평가한 바 있습니다.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그리고, 그 희망의 빛줄기 앞단에는
석유화학산업이 있었습니다.

❶ **지난해 수출이 7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다**
4분기에 들어 증가세(1.9%)로 전환되었는데,
여기에는 석유화학 수출이 9.2% 성장한 것이
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.

이는 정부와 기업, 유관기관이 합심하여,
수출 **주체**와 **품목** 그리고 **시장**과 **방식**을 혁신함으로써
얻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1-12 10:43:59

❷ **또한, 지난해는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한해였습니다.**

주요 **대기업들**은 **사상 최대의 영업이익**을 기록하였고,
중소기업들도 화장품 등 **정밀화학제품** 위주로
수출가격이 10년 전에 비해
2배 이상 오르는 **질적 성장**을 이루어냈습니다.

연구개발에 있어서도,
세계 최초로 **투명 폴리이미드** 양산 기반을 확보하였고,
고강도 플라스틱인 **폴리케톤**, **OLED용 유기 안료** 개발 등
미래 화학산업 발전을 이끌 **잠재력**도 확충하였습니다.

❸ **한편, 지난해는 정부와 업계, 전문가들이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.**

「**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**」을 통해
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**사업재편**과 함께,
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**방향**도 모색하였습니다.

이에 발맞춰, 석유화학 업계는
폴리스티렌(PS), **가성소다** 등 **공급과잉 품목 설비**를
감축하고, **ABS**(고기능 합성수지), **가성칼륨** 등
고부가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였습니다.

또한, **설비 대형화**와 **원료 다변화**를 도모하면서도,
자본과 **유통망**을 가진 **외국기업과 합작**을 추진하고,
저원가 원료기반의 **해외 생산기지를 확충**하는 등
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.

【 2017년의 석유화학 산업 여건 】

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
우리 석유화학산업 여건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.

브렉시트 이후, 영국과의 통상관계 재정립을 위해
지난달 **영국**을 방문하였습니다.

한영 통상장관회담 중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말하길,
"**2017년은 한 단어로 unpredictability**"라고 하면서
글로벌 통상환경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우려하더군요.
저 역시 이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특히, 선진국을 중심으로
국제정치의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,
보호무역과 **자국 우선주의**,
강대국간 대결국면도 전개되고 있어,
세계정세는 실로 **안개 속을 달리고 있는 상황**입니다.

더욱이 최근의 **유가 상승**은
석유화학 제품 단가 상승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,
미국의 가스화학, 중국의 석탄화학 투자를 촉진시켜,
장기적으로 **위협요인**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1-12 10:43:59

【 2017년의 석유화학 산업정책 방향 및 당부말씀 】

이러한 **불확실성** 속에서도,
우리가 **원칙**에 따라 **중심**을 잡고 정진한다면,
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는
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.

이러한 측면에서 올해,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**원칙**은
❶ **사업 재편**, ❷ **수출 확대**,
그리고 ❸ **새로운 먹거리 창출**이라고 생각합니다.

❶ **첫째로, TPA, 폴리스티렌 등**
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서는
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재편은 단순히 생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,
불필요한 군살을 제거하여
기업의 **미래 성장동력을 확보**하는 과정입니다.

각 기업에서는 **현재의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,**
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
미래에 대한 혜안과 **과감한 결단력**으로
성장이 정체된 사업을 정리하고 **신산업을 발굴**하는 데
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
정부는 「**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**」을 적극 활용하여
금융, 세제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,
울산 지상배관망 구축, 대산 첨단화학단지 조성 등
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❷ **둘째, 지난해 4분기 이후 조성된**
수출흑자 기조를 정착시켜
수출 5천억불 회복에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.

이를 위해 **기능성·고부가 제품** 비중을 높이는 한편,
중남미, 아프리카 등 **미개척 지역**으로
수출을 확대해야 합니다.

한편, 각국의 **무역장벽 강화 움직임**에 대해서도,
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정부도 **통상협력 채널**을 통해 **동향을 예의주시**하면서
수입규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❸ **셋째, 4차 산업혁명시대의**
새로운 먹거리 창출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.

사물인터넷(IoT)과 **인공지능, 빅데이터** 등
파괴적 혁신 기술을 동인으로 하는 **4차 산업혁명**이
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.

4차 산업혁명은 IT, 자동차 뿐 아니라,
석유화학산업에도 새로운 **도전**이자 **기회**가 될 것입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1-12 10:43:59

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(O2O)하고,
빅데이터를 활용하여 **최적의 생산방식을 적용**함으로써
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또한, **탄소섬유 복합재, 엔지니어링 플라스틱** 등
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소재 개발에
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.

정부도 미래 화학 분야 **R&D에 아낌없이 투자**하고
업계의 **신산업 진출을 지원**하겠습니다.

【 맺음말씀 】

석유화학 가족 여러분!

글로벌 경쟁국들은 저성장에서 벗어나고,
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
경쟁적으로 **파괴적 혁신**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우리 석유화학 업계 역시,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
산업구조를 한 단계, 아니 두 단계 이상 높일 수 있도록
"**심모원려**(深謀遠慮)의 자세"를 갖고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.

이를 통해, 붉은 닭의 해인 2017년이
우리나라가 "**글로벌 첨단화학 강국**"으로 도약하는
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